

‘공실률 1위’ 빛가람혁신도시, 공실박람회로 돌파구 찾는다

1분기 집합상가 공실률 42.23%...정주여건 개선 노력에도 효과 미비
전국 최초 온라인 ‘공실박람회’ 개최...상권정보 제공·상담 지원 등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집합상가 10곳 중 4곳 이상이 공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실률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국 최고로 높았다.

나주시는 지역민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나홀로’ 힘을 쏟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 부족 등으로 공실을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나주시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 1분기 기준 42.23%로 2023년 45.2% 대비 소폭 개선됐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3년 빛가람혁신도시의 높은 공실률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용역을 통해 상권 현황 분석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기관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전체 집합건물(6967개실)의 93.2%인 6494개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934개실(45.2%)가 공실로 조사됐다. 집합건물을 제외한 전체 건물에 대해서도 43.4%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42.23%로 2년전 나주시 자체 조사 결과보다 3% 가량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압도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5만 달성 및 도시 활성화, 공실을 개선 등을 위해 버스 노선 확대, 도심 내 콜버스 운영을 통한 지역민 편의성 제고, 어린이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 건설 계획 등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실률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목표치를 향해 순항하던 지역 인구마저 지난해 5월 4만명 선을 넘어선 뒤, 올해 초 다시 3만9000명대로 추락했다.

고민 끝에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카드로,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 온라인 ‘공실 박람회’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전

용 누리집(www.bizplacefair.com)을 통해 누구나 상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누리집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실들을 건물별, 매물별로 나눠 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장업을 앞둔 경우 공실 상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공실 상가의 위치와 면적 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 임대비용까지 계약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심이 있는 매물에 대해 지역 소재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나주시 또는 중기청,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등 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들도 누리집 한 곳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나주시는 상세한 정보 제공 및 계약 편의성 제고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 내 장업을 늘리고, 공실률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저하하는 공실률 문제를 개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상업용지 허용용도 확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빛가람혁신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에너지ICT 인재육성 나선다

송실대와 교육·기술 분야 협력

한전KDN은 “최근 서울시 송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에너지ICT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 정책 방안에 맞춰 양 기관이 교육·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 이윤재 송실대 총장을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한전KDN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협약 서명,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

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협력,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지원, 공동 행사 개최와 실무자 간 인적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양 기관은 미래지향적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 ICT 분야 전문 공기업과 IT·정책 융합 역량을 갖춘 대학이 함께 전문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반 에너지전환 정책 및 기술 발전 성과를 만들어내고, 청년 세대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및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산·학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산업 육성 협약

한전KPS는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리 수요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폐물 관리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인력 양성 및 교육 협력,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목적으로 실무회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의 방폐물 관리 산업 육성 정책 기조와 발맞춰, 국내 원자력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될 전망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한전KPS는 원전 유지보수 및 해체 준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영역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함께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지은행 더 편리하게...농어촌공사, 공공마이데이터 제출 서류 확대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기존 주

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제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등 7종이었지만, 이번 확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추가됐다.

이로써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이 모두 인종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참여자들의 시간·행정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제출 건 수만 연간 10만여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ESG활동 및 직원들의 업무 처리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의 서류 제출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학연금,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2년 연속 A등급

기금운용 성과 2년 연속 최고 실적...고객 중심 디지털 행정 호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교육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각 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을 위해 매년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주요사업 관리·성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사학연금은 이번 평가에서 기금 운용 성과, 고객 중심의 업무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2조 7725억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수익으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사립학교 무기계약직 1073명에 대한 신규 가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 시스템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안관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최초 도입 등 고객 중심의 디지털 행정 혁신 성과도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은 전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룬 값진 결과”라면서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연·기금 운영 및 교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